"박지성 선수처럼 훌륭한 축구선구가 되고 싶어요."

- 어려운 환경에서 축구선수를 꿈꾸는 16살 준혁(가명)이 이야기 -

준혁(가명)이는 아빠, 엄마 그리고 지적장애인 형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막노동 일을 하다 사고로 다리가 절단된 장애인이고, 어머니는 시간제 일용근로자입니다. 준혁이네 4식구는 어머니가 벌어오는 60여만원의 임금에 약간의 정부지원금으로 근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갈 형편이 되지 못했던 준혁이는 학원 대신 학교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며 시간을 보냈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학교 축구부에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축구 코치님의 신뢰와 촉망을 받고 있지만 때마다 참여해야 하는 전지훈련이나 운동에 필요한 비용은 준혁이의 넘을 수 없는 산입니다. 지금은 재능을 썩힐 수 없다며 코치님이 사비를 털어 지원해 주고 있지만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박지성 선수처럼 최고의 축구선수가 되어 나라의 자랑거리,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싶은 준혁이의 꿈을 함께 지켜주세요.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준혁이의 훈련비로 지원되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들의
꿈을 위한 청소년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

후원문의 : ☎ 02-3396-1004